

2023. 12

이슈포커스 2023-04호

Fisheries
Economic
Institute

수산 이슈포커스

2024년 경제 및 금융 이슈 | 조용준 연구실장
박영진 책임연구원
강인순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3.12

이슈포커스 2023-04호

수산 이슈포커스

Topic

■ 2024년 경제 및 금융 이슈 3

| 조 용 준 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 박 영 진 책임연구원 · 강 인 순 책임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4년 경제 및 금융 이슈

조용준 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cyj66@suhyup.co.kr)

박영진 책임연구원
(sinyo82@suhyup.co.kr)

강인순 책임연구원
(insoonkang@suhyup.co.kr)

목 차

요 약	5
I. 서 론	9
II.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11
III.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23
IV. 금융산업 동향 및 이슈	32

요 약

1.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 '22년 3.5% → '23년 3.0% → '24년 2.9%

-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금리, 경제블록화, 중국 경기침체 등으로 세계 경제는 성장 둔화
- 미국의 '23년 경제는 견고하였으나 '24년은 둔화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 : '22년 8.7% → '23년 6.5~6.9% → '24년 4.1%~5.8%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으나 세계통화은행의 이상치인 2% 수준보다는 높음 수준으로 전망됨
- 미국·유로존은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인 반면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부동산발 위기 등 경기침체 속에 낮은 수준을 기록

■ 국제유가 : '22년 96.4\$ → '23년 80.5\$ → '24년 79.9\$¹⁾

- '22년 국제유가는 120\$대까지 올랐으나 '23년은 80\$대로 완화되었고 '24년은 올해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OPEC+의 감산과 국지전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면밀한 관측 필요

■ 금리 : '2013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나 '24년 다소 둔화 예상

- 미국 기준금리 '22. 2월 0.0~0.25% → '23.11월 5.25~5.5%로 43배 인상
 - 미 30년 국고채금리 '22. 2월 2.161% → '23.10월 5.093% → '23.11월 4.493%로 2.1배 인상
- '23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시중금리 경험 중이나 최근 다소 완화되면서 '24년 금리 하락 또는 둔화 예상

2.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률 : '22년 2.6% → '23년 1.4% → '24년 2.1%

- 수출부진, 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국내경제는 저성장 기조 유지
- 반도체 경기의 회복 등으로 '24년은 다소 회복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2년 5.1% → '23년 3.6% → '24년 2.6%

- '22년 급속히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23년 완화되고 있으나 '20년 0% 물가상승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4년 경기둔화 및 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현재 수준보다 둔화 예상

■ 금리 : '2013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나 '24년 다소 둔화 예상

- 기준금리 '22. 1 1.25% → '23. 1 3.5% → '23.11 3.5%로 올해 동결
- 시장금리는 '22년 4분기를 최고점으로 '23년 하락하여 '24년 다소 둔화 예상

■ 수출(실질) : '22년 3.6% → '23년 2.3% → '24년 3.3%

- 수출은 침체됐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4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 '23년 부동산 가격은 조정장세이나 고금리가 지속되며 '24년 하방 압력이 높아짐

- '23년 10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부동산발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 또는 장기적 추세의 의견이 양분화되면서 부동산 침체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

3. 금융산업 동향 및 이슈

■ 은행업 총자산 : '22년 급속히 성장 후 '23년 완만한 지속 성장

- '23년 시장금리의 급속한 상승으로 대출의 상승세가 꺾이며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 수익 : 금리의 급속한 상승으로 은행권 수익은 큰 폭 증가

- 수익의 대부분은 금리 상승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이자가 크게 하락 시 수익은 제한될 수 있음
- '24년 총선을 기점으로 은행권의 수익증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시각이 악화할 수 있어 사회 기여활동에 대한 보폭을 늘릴 필요가 있음

■ 리스크 : 고금리로 '23년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24년은 리스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고금리로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업발 리스크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
-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24년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1금융권으로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4. '24년 키워드

■ 세계경제 : 소비 둔화, 부동산 침체, 경제 블록화, 곡물가격 불안정, 금리 인하
⇒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 국내경제 : 고금리, 부동산 침체, 부동산 PF 부실, 인플레이션 둔화 ⇒ 경제 성장의 변동성 확대

■ 금융산업 : 건설업과 기업대출 리스크, 부동산 PF 부실, 수익성 둔화, 정치권 압력, 금융산업의 AI 접목 확대 ⇒ 은행업 성장의 차별화 및 양극화

【 결과 종합 】

구 분	동향 및 전망	'24년 키워드
세 계	경제성장률 : '22년 3.5% → '23년 3.0% → '24년 2.9% CPI* : '22년 8.7% → '23년 6.5~6.9% → '24년 4.1%~5.8% 유가 : '22년 96.4\$ → '23년 80.5\$ → '24년 79.9\$ 금리 : '2013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나 '24년 다소 둔화 예상	소비 둔화, 부동산 침체, 경제 블록화, 곡물가격 불안정, 금리 인하 ⇒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국 내	경제성장률 : '22년 2.6% → '23년 1.4% → '24년 2.1% CPI : '22년 5.1% → '23년 3.6% → '24년 2.6% 수출 : '22년 3.6% → '23년 2.3% → '24년 3.3% 금리 : '2013년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나 '24년 다소 둔화 예상 부동산 : '23년 부동산 가격은 조정장세이나 고금리가 지속되며 '24년 하방 압력이 높아짐	고금리, 부동산 침체, 부동산 PF 부실, 인플레이션 둔화 ⇒ 경제성장의 변동성 확대
금 용	총자산 : '22년 급속히 성장 후 '23년 완만한 지속 성장 수익 : 금리의 급속한 상승으로 은행권 수익은 큰 폭 증가 리스크 : 고금리로 '23년 연체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24년은 리스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건설업과 기업대출 리스크, 부동산 PF 부실, 수익성 둔화, 정치권 압력, 금융산업의 AI 접목 확대 ⇒ 은행업 성장의 차별화 및 양극화

※ 각 수치는 인용 기관에서 전망한 수치임

*CPI : 소비자물가지수

1) 3개 유가(WTI, Brent, Dubai) 단순 평균

I 서론

■ 배경 및 필요성

- 올해('23년) 국제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경제의 블록화, 전쟁 등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요약할 수 있음
- 작년('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과잉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해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미국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채권가격의 폭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한 한해였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미국을 제외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임
-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3년 10월 7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가 등 국제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세계는 기존 자유무역 기조에서 미국-중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수출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올해 국제경상수지의 적자가 수개월 지속하였고 경제성장률도 지속 하향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GAP), 금리 불안, 부동산 PF²⁾(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성 등이 '23년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대내외적 거시 경제 상황은 수협과 수산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예의주시가 필요함

2)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

■ 목 적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3년의 국내외 경제 현황과 금융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24년 경제와 금융의 주요이슈를 제시함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경제관련 통계데이터를 분석함
 - 연구 프로세스는 국내외 경제 동향 및 금융산업 동향 등을 살펴보고 각 파트별 주요 이슈와 '24년 전망을 제시함
- 이를 통해 수협과 수산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시사점을 제시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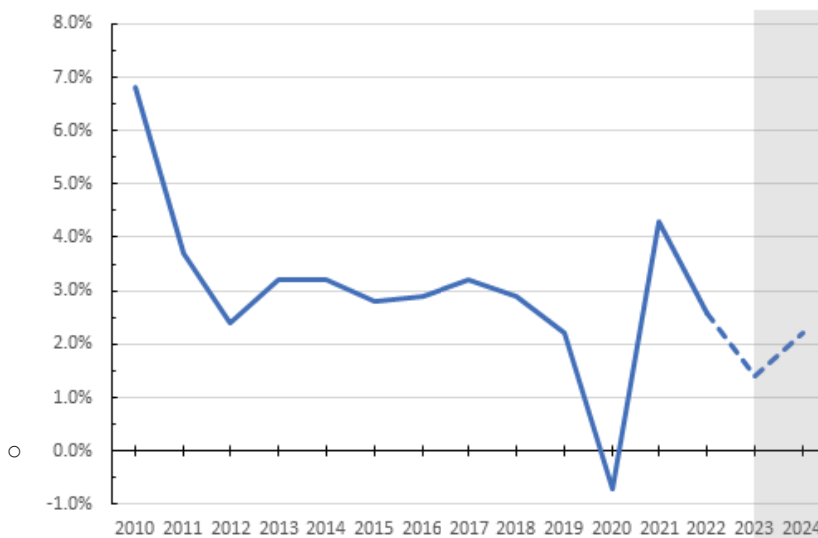
Ⅱ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

1. 세계경제성장률

■ 세계경제성장률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23.10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이 '22년 3.5%에서 올해('23년) 3.0%, 내년('24년) 2.9%로 전망
- 올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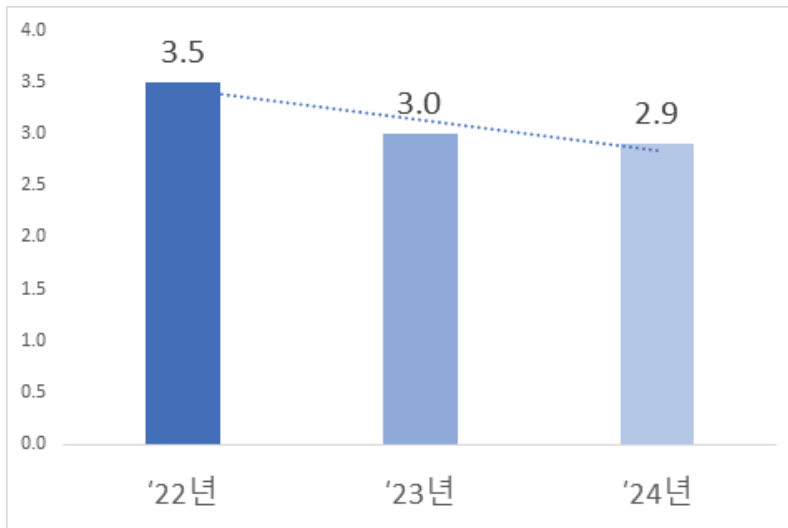
【 세계 경제성장률 추세 】



3)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국가별 경제성장률

- 미국은 '23년은 전년과 동일한 2.1% 성장률로 전망되었으나 소비 증가세와 민간투자 증가 등의 이유로 3분기 YoY(전년동기비) 4.9% 상승하는 등 경제가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말 성장률 수치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24년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경제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추정됨
- 유로존은 '23년 0.7% 성장률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Delta 2.6\text{p}$ 급감하였으나, '24년에는 다소 완화되어 0.5%p 증가한 1.2%로 예측됨
- 중국은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마감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중국의 생산, 투자, 소비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형다·비구이위안 發 부동산 위기에 따라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23년은 전년보다 2.0%p 증가한 경제성장률로 전망되나 '23년은 $\Delta 0.8\text{p}$ 감소한 4.2%로 전망됨
 - 중국의 경제성장률 5.0% 이하의 의미는 그동안 지속해온 고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일본은 '23년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소비가 다소 회복되고 관광객증가·자동차 수출 등의 영향으로 2.0%의 성장이 예상되나 세계 경제 둔화와 이러한 요인들이 소진되면서 1.0% 수준의 성장으로 전망됨

【 주요국가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국가	'22년(A)	'23년(B)	'24년(C)	B-A	C-B
세 계	3.5	3.0	2.9	-0.5	-0.1
미국	2.1	2.1	1.5	0.0	-0.6
유로	3.3	0.7	1.2	-2.6	0.5
일본	1.0	2.0	1.0	1.0	-1.0
중국	3.0	5.0	4.2	2.0	-0.8
한국	2.6	1.4	2.2	-1.2	0.8
신흥개도국	4.1	4.0	4.0	-0.1	0.0

자료 :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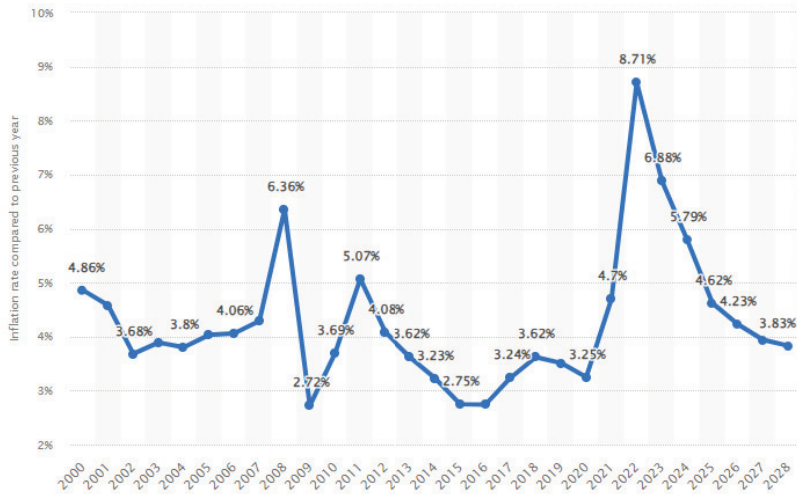
2. 글로벌 인플레이션

■ 세계 인플레이션

- '22년 세계 인플레이션은 최근 20년간 최고치인 8.7%를 기록하였고 '23년은 다소 완화된 6.5~6.9%⁴⁾로 전망됨
 - 코로나19 시기 동안 풀렸던 유동성, 미중간 갈등으로 유발된 경제 블록화 등의 영향으로 '21 하반기부터 세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음
- 다만,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등의 효과로 '24년에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4.1%~5.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됨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orld Bank, OECD, Conference Board, Statitica.com 전망치

【 세계 인플레이션 추세 】



자료 : Statista.com(Global inflation rate from 2000 to 2022, with forecasts until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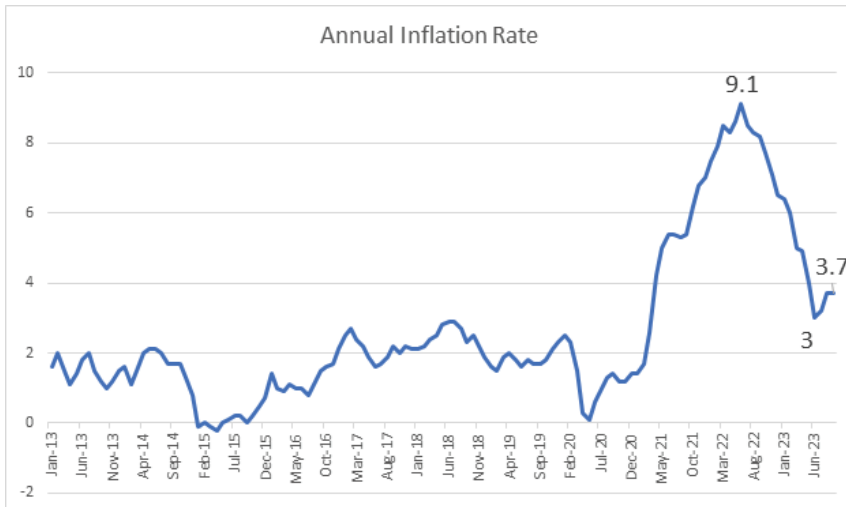
■ 국가별 인플레이션

- 미국의 인플레이션(CPI⁵⁾ 기준)은 '22년 6월 9.1%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여 '23년 10월 3.2%까지 완화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24년에는 2.6%⁶⁾로 전망하고 있음
 - 10월 기준 상품, 서비스 등의 근원 CPI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2년의 고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
 - 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ank; FRB)의 금리정책,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상황, 경기둔화, 소비심리 등의 영향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음

5) CPI : Consumer Price Index(소비자물가지수)

6) FOMC 홈페이지(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인플레이션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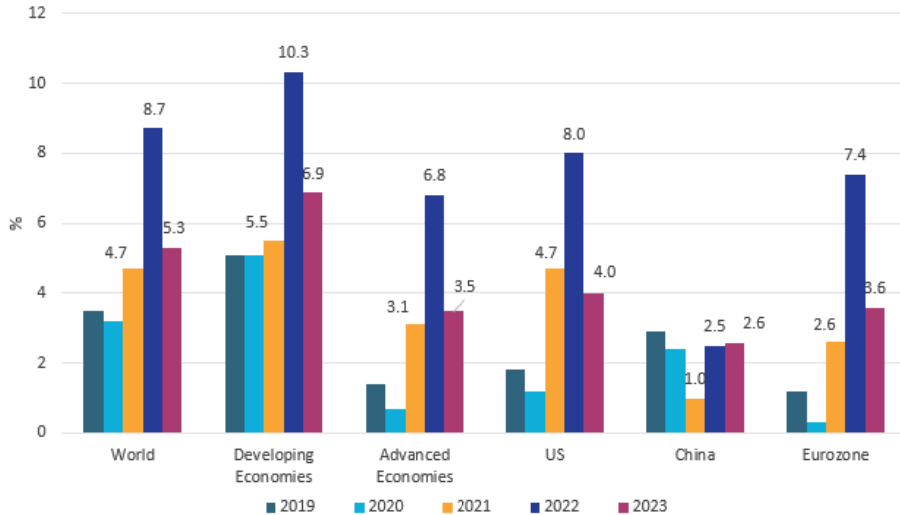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 선진국과 유로존 국가들, 개도국 등의 인플레이션은 수치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한 인플레이션의 추세('22년 급등, '23년 완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년에는 인플레이션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늦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이 2%대로 안정적이거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오히려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23년 10월 CPI는 전년 동기대비 -0.2%⁷⁾로 소비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다만, 최근 강한 부양책을 발표하여 회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7) 인베스팅닷컴(<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chinese-cpi-459>)

【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

(단위 : %)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Macro Model(기준 2023.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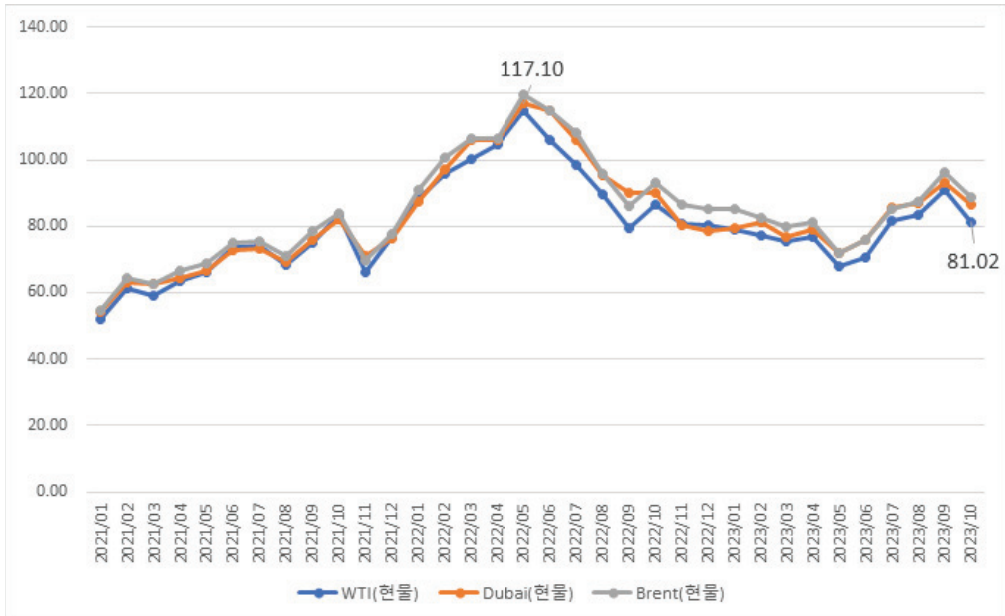
3. 국제유가

■ 국제유가 추이

-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중국의 소비 둔화에 따른 원유수요가 감소하면서 '22년 급상승했던 유가는 '23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22년 WTI 월 기준 120\$에 육박하던 유가는 '23년 10월 80\$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3.7.6일 발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현재 시점까지 국제유가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함
- 유가는 어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요인으로 '22년 치솟았던 어업 비용은 '23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 유가 추이 】

(단위 : \$/bbl)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국제유가 전망

- IMF⁸⁾는 '24년 국제유가를 '23년과 비슷한 수준인 80\$ 수준으로 전망하여 '22년 대비 하양 안정세가 이어질 것 예측됨
 - '24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국제유가는 이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음
 -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24년 나타난다면 소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국제유가는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음
 -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24년 유가는 현재의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
- 국제유가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OPEC+의 감산 움직임과 우-러전쟁·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대 등 여러 변수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8)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 국제 유가 추이 】

(단위: \$/배럴)

	2022	2023				2023	2024
		Q1	Q2	Q3	Q4		
IMF 평균유가 ¹⁾	96.4	80.5				80.5	79.9
WTI ²⁾	80.3	75.7	70.6	90.8	83	79	82
Brent ²⁾	81.3	79.1	75	96.3	86.5	80.5	76.5
Dubai ²⁾	78.7	76.8	76	98.9	89.1	84	9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23.11), 2024년 경제전망 재인용(원자료 : Bloomberg(2023.10), IMF WEO)

주1) IMF 평균유가는선물가격기반3개유가전망치의단순평균

주2) 기말기준이며, 2023년4/4분기부터는주요투자은행전망치의중간값('23.10.12. 기준)

4. 국제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1) 국제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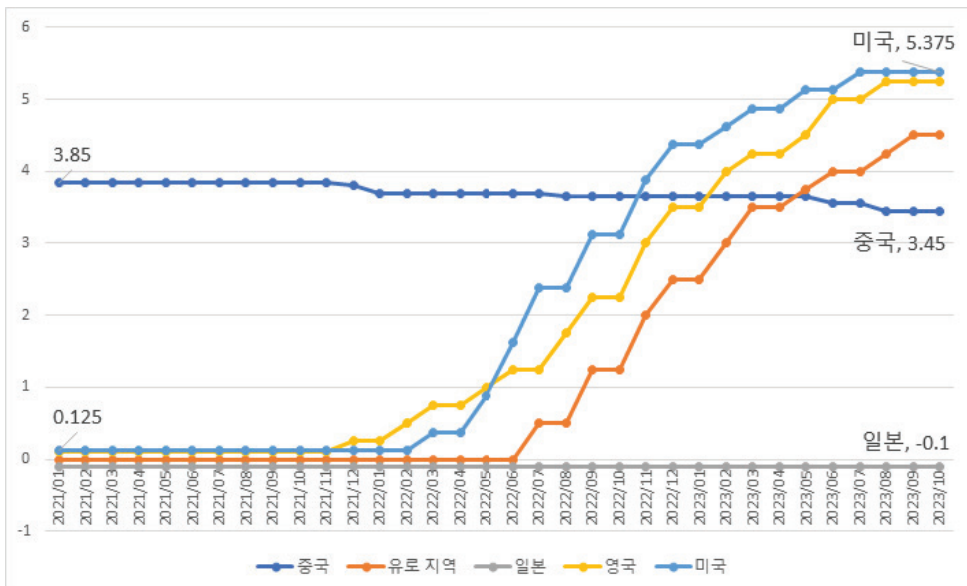
미국 및 유로존

-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2월 이후 FOMC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속히 올려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인 5.25~5.5%(11월 기준)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중앙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은 기준금리를 '22년 2월까지 0.125%를 유지하다 이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급하게 상승하여 현재 5.25~5.5%(평균 5.375%) 수준임
- '24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터넷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수준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의 의견에서 100bp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유로존 지역의 국가도 미국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 및 일본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코로나19 폐쇄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음
 - '21년 3.85%에서 '23년 10월 기준 3.45%로 40bp(basis point) 인하함
- 일본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23.10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 기준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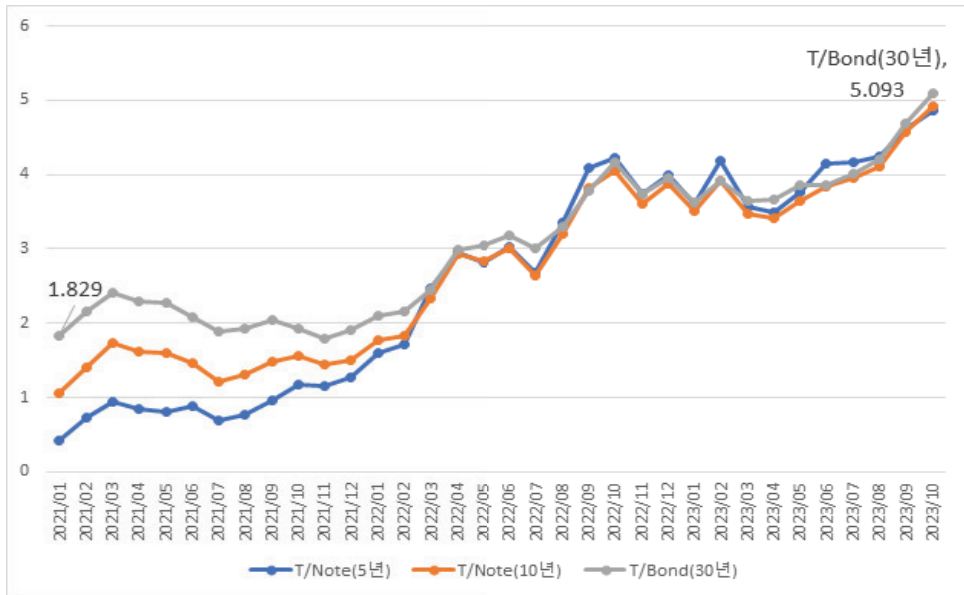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2) 미국 국고채 금리

- 미국 국고채 금리는 '23년 10월 '21년 대비 3배가 오른 5.093%를 기록, 최근 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임
 - 미국의 국고채 금리는 30년물 기준 '21년 1월 1.829%에서 '23년 10월 5.093%로 3.264%p로 343% 증가하였음
- 다만, 11월에는 4%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채권금리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24년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금리는 더욱 안정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국채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참고 : T/Note(Treasury Note), T/Bond(Treasury Bond)

5. '23년 주요 이슈 및 '24년 전망

1) '23년 주요 이슈

▣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경제지표 안정화

- '22년 高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국제사회는 '23년 하반기(특히 3/4분기)를 기점으로 안정화 초기 단계로 전환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전세계 경제의 기준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7월 이후 5.25~5.5%를 유지하고 있음
- 국제유가, 채권금리, 주식시장 등도 동기화되고 있어 '23년 연말 경제지표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견고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23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2년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나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매우 견고하게 나타나 미국의 경제는 과열을 우려하는 정도임

■ 러-우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 '22.2.4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러-우 전쟁은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되며 '24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초기 유가 및 곡물의 급등 등 불안정하던 세계경제는 '23년 이후 제한적 영향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음
- '23.7.6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도 금융 및 유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음

■ 과거 세계경제를 견인하던 중국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진 지속, 소비침체 등으로 성장세 둔화

- 헝다·비구이위안 發 부동산 위기에 따라 경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소매판매 감소 등 소비침체 조짐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19년 홍콩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강제진압 등의 대응과 '23년 7월 반간첩법 통과 등 시장 비친화적인 정책으로 국제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임

■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교역 감소 및 무역분쟁 증가

- 미국은 '22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칩 4 동맹 등을 통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고 있으며 '21년 미국 배터리 보조법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 수입을 규제하는 등 중국의 첨단 산업화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3년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G2국가간 무역분쟁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유발하여 수출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24년 전망⁹⁾

■ 주요 키워드 : 소비 둔화, 부동산 침체, 경제 블록화, 곡물가격 불안정, 금리 인하
⇒ 세계경제성장을 둔화

- 세계 경제는 소비 둔화에 따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완화, 실업률 상승 등 성장률의 둔화를 많이 전망하고 있음
- 고금리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더욱 소비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첨단산업으로 시작된 경제 블록화는 중국의 경제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역량 감소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 예상
- 곡물가격은 이상 기후의 가속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견고했던 미국의 경제는 둔화될 수 있으며 연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장금리 인하, 채권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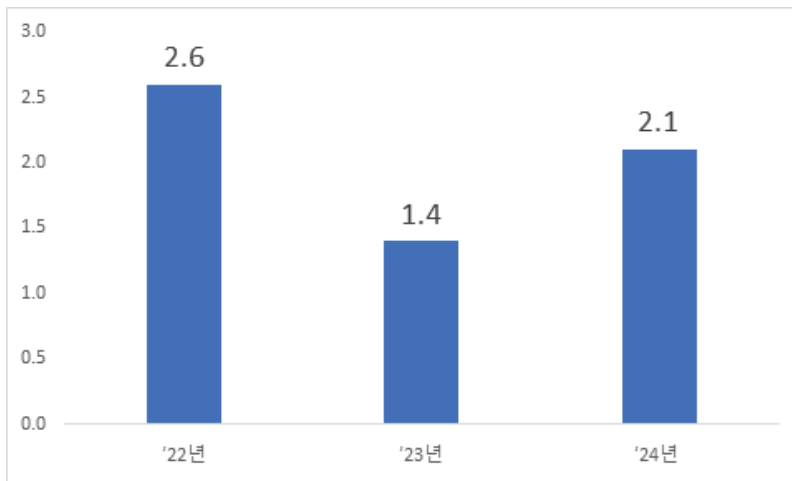
9) 인터넷 및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제시; 국제금융센터 (2023.11.13.), 글로벌 경제 전망 추이 및 평가; 한국금융연구원 (2023.11), 2024년 경제전망; KDI(2023.08), KDI 경제전망; 국회예산처(2024.10),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한국은행(2023.08),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2023.0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0) 2024년 세계 경제 전망; OECD(2023.0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World Bank Group(2023.06), Global Economic Prospects;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Ⅲ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률

- '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로 예상되며, 내년 성장률은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며, 성장률이 2.1%로 금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다만, 향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중국경제 등에 따른 파급영향이 있어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모멘텀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는 1.9%, 내년도 1.9%로 전망됨
- 재화수출은 당분간 더딘 회복 흐름과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 증가하고, 내년에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3.3%로 전망됨

- 금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금융비용 증가, IT경기 부진 등으로 위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투자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중 설비투자는 3.0% 감소할 전망이나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첨단공정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라 4.0%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부문별 주요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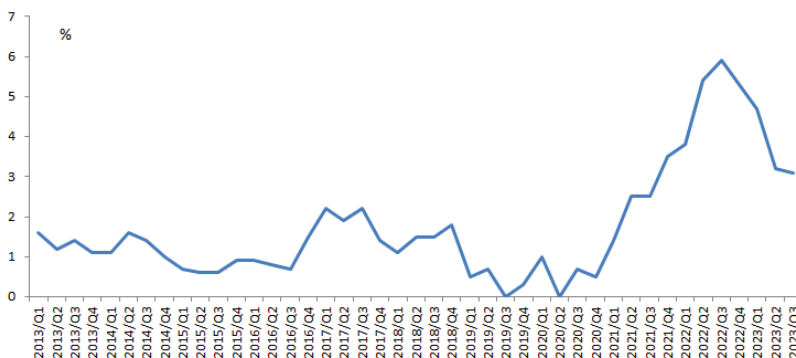
구 분	'22년	'23년	'24년
민간소비	4.1	1.9	1.9
재화수출	3.6	2.3	3.3
설비투자	-0.9	-0.4	4.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2. 물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3분기 5.9%를 정점 이후 오름세가 진정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음
 - '22년 5.1% → '23년 3.6% → '24년 2.6%로 전망됨¹⁰⁾
-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일부 가공식품가격 인하 등의 하방요인으로 인해 3.6%로 예상됨. 다만, 환율과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 우려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10)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용상승압력, 노동시장의 실업자수 대비 빈일자리가 완화되면서 2.6%로 낮아질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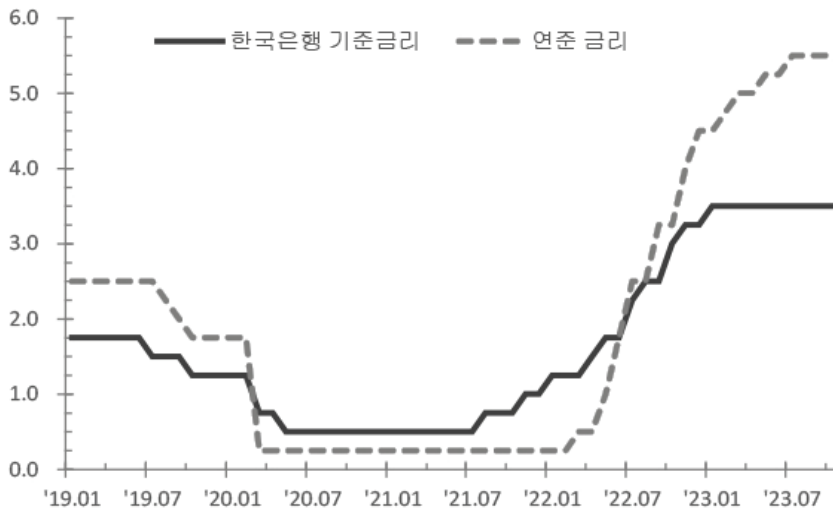
구 분	'22년	'23년	'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2.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3.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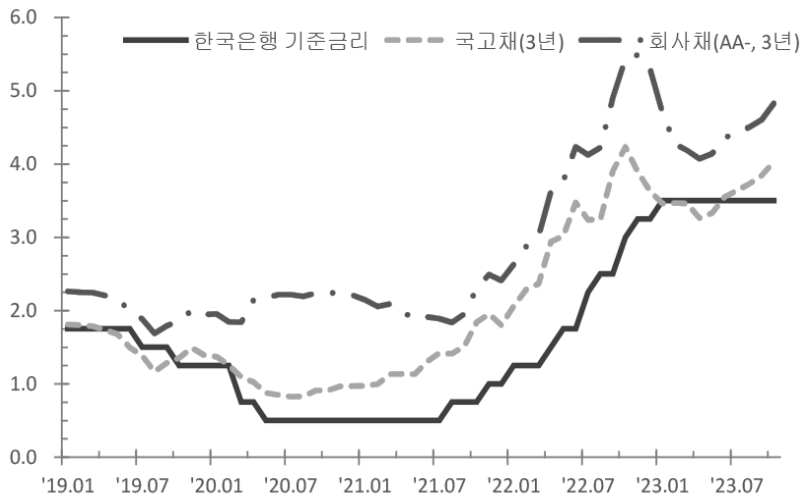
- '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3년 1월 이후 동결이 지속되어 현재('23.11)까지 3.5%를 유지하고 있음
 - '23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반면, 미국의 연준금리는 상승하여 한미 금리의 역전현상이 심화되었음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여건(물가, 미국금리 등)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있음
 - 다만, '23년 11월 미국의 CPI가 완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도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 물가 상승률, 부동산 가격 등 대내외 영향요인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4년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 기조와 경기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고금리 상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시장금리

- '23년 동결되었던 기준금리와 달리 시장금리는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
- '23년 11월 미국의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금융권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24년 국내 시장금리도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가시화는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금리는 변동성이 크며 미국 정책당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하락은 어려울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무역(수출/수입/수지)

- 재화수출은 당분간 대중국수출 부진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음. 연말에는 반도체경기가 회복되며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2.3% 증가하고, 내년도에는 3.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부문의 수출 성장세는 견고하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의 수출이 크게 부진하여 올해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4년 반도체 수출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수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재화수입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감소해 -0.2%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부진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재화수입은 '23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4년에는 수출경기 개선 등으로
- 경상수지는 하반기 수출 부진 완화, 에너지감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흑자폭이 확대되어 3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4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입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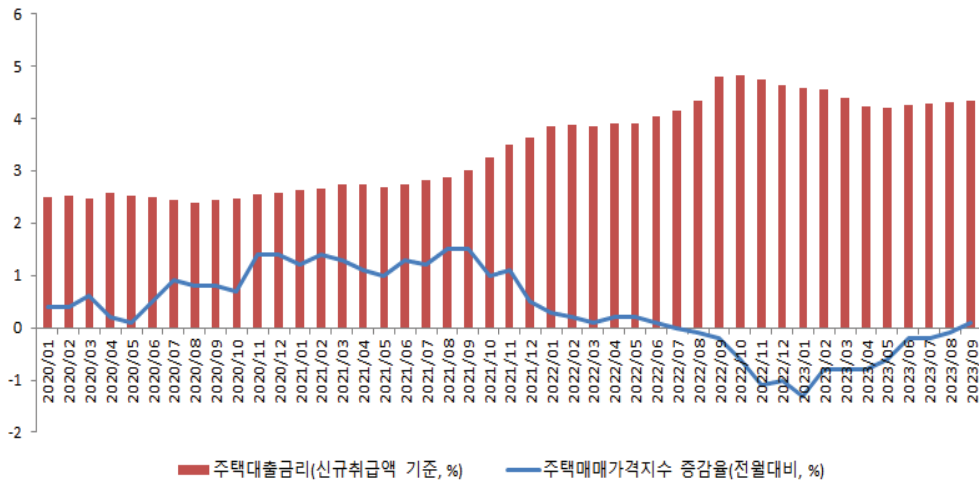
구 분	'22년	'23년	'24년
재화수출(실질)	3.6	2.3	3.3
재화수입(실질)	4.3	-0.2	2.4
경상수지(억달러)	298	300	49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5. 부동산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지난해 대비 낮아진 연초 신규대출금리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에 선행하는 실거래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신규 대출금리 반등, 아파트 매물 증가 등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개선 흐름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임
-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2년 8월 마이너스(-0.1%)로 돌아선 이후 하락폭이 축소하다가 '23년 9월(+0.1%) 이후 플러스로 전환함
-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신규대출금리는 '22년 9월 4.79%로 정점을 찍었으나 '23년 9월 4.35%로 일년 동안 0.44% 감소함
-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고 있고, 이자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하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회복흐름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망되고 있음
- 다만 '23년 10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부동산발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 또는 장기적 추세의 의견이 양분화되면서 부동산 침체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

【 주택가격 및 은행대출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6. 주요 이슈

1) '23년 주요 이슈

▶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가계부채 대두

- '22년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OECD 국가 중 3위(1위 스위스 2위 호주)임
- 우리나라 특성상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대출이며,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 시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특히, 가계부실은 소수의 기업부실과 달리 다수 국민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회생을 위한 정책 마련이 어렵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음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음

- 세계경제의 블록화(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미국 수출 규제 등) 및 급격한 반도체 수입감소로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 크게 부진하여 경제성장률 증가가 둔화하였음. 다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22년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나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매우 견고하게 나타나 미국의 경제는 과열을 우려하는 정도임

■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우려

- '23년 11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1291개 중 부실금고는 18개로 '22년 5개에서 3.6배 증가함
- 이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대출¹¹⁾ 부실에 따른 결과로 정부가 조기에 새마을금고에 자금투입·관리에 나서며 봉합하였음
-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24년 경기 침체까지 겹쳐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음

1) '24년 전망¹²⁾

■ 주요 키워드 : 고금리, 부동산 침체, 부동산 PF 부실, 인플레이션 둔화 ⇒ 경제성장의 변동성 확대

- 현재 수준의 고금리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의 고금리가 현저히 완화될 확률도 낮으므로 당분간 고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 부동산은 '23년 10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서 11월 현재 부동산발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 또는 장기적 추세의 의견이 양분화 되면서 부동산 침체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들. 다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下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기는 어려움

11) 대출 시자금조달의 기초를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사업추진) 자체에 두는 대출 기법

12) 인터넷 및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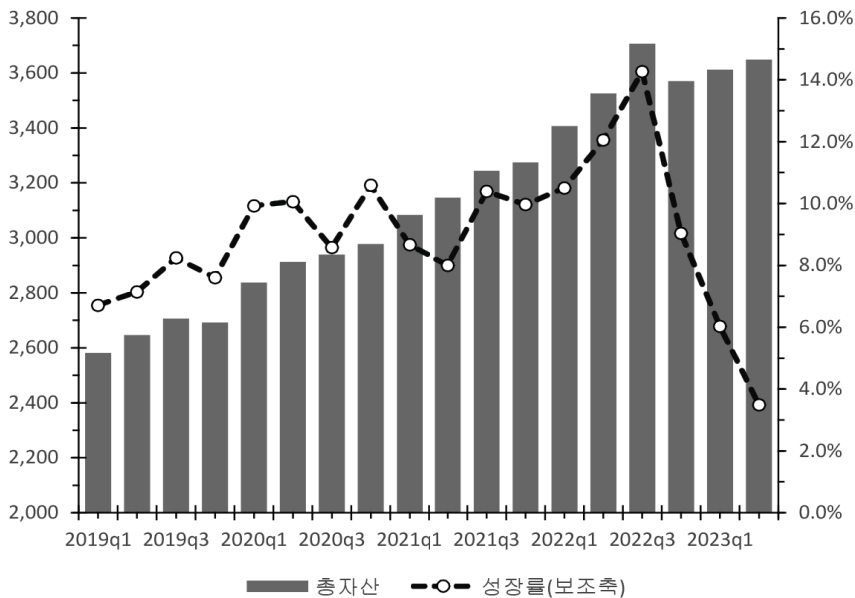
- 2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24년 다시 대두될 수 있음. 다만 국가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금융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원조합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됨
- 물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블록화가 확대된다면 2%대의 물가로 회귀하는 것은 오랜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24년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 동인들의 변동성과 가속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Ⅳ 금융산업 동향 및 이슈

1. 은행업 자산성장

■ 은행업 자산성장률

- 은행의 총자산은 '21년 1분기 3,000조원을 돌파하고 '23년 2분기 현재 3,600조원을 넘어섰음
- 은행 대출의 급격한 상승세는 '22년부터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음
- 시장금리가 상승으로 인하여 신용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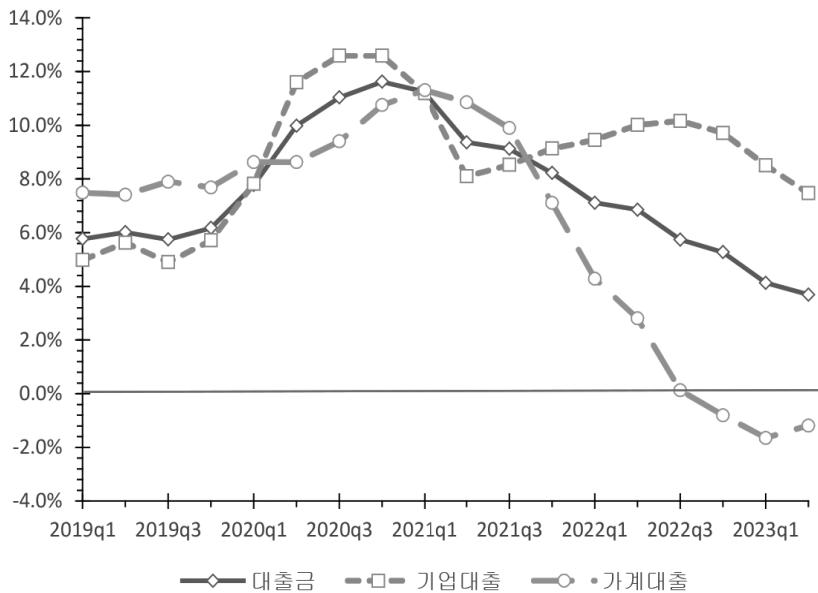


주: 은행별 합산값.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업 대출금 성장률 추이

- 은행업의 대출금 성장률은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가계대출은 '22년 3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 고금리 지속과 더불어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대수익률 하락은 가계의 대출수요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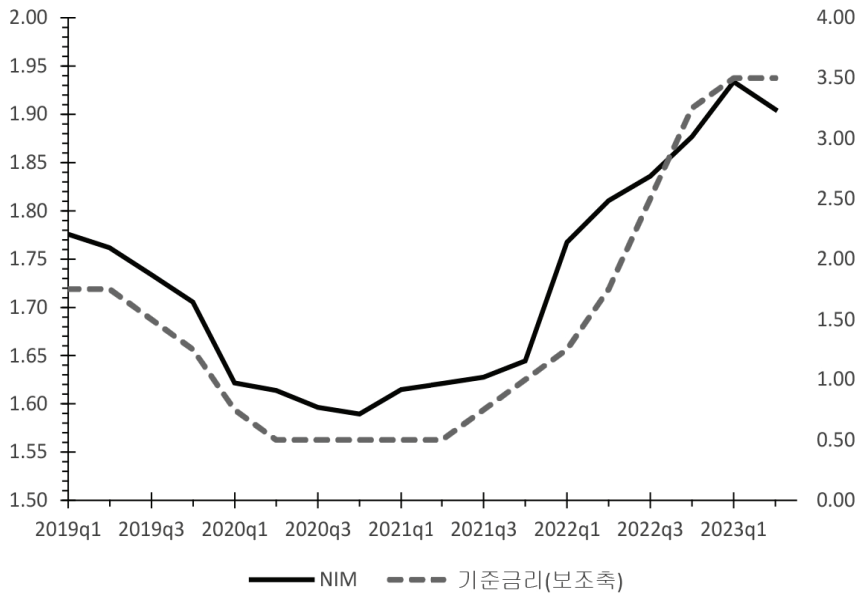
주: 은행별 합산값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은행업 수익지표

■ 순이자 마진

-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은행의 순이자마진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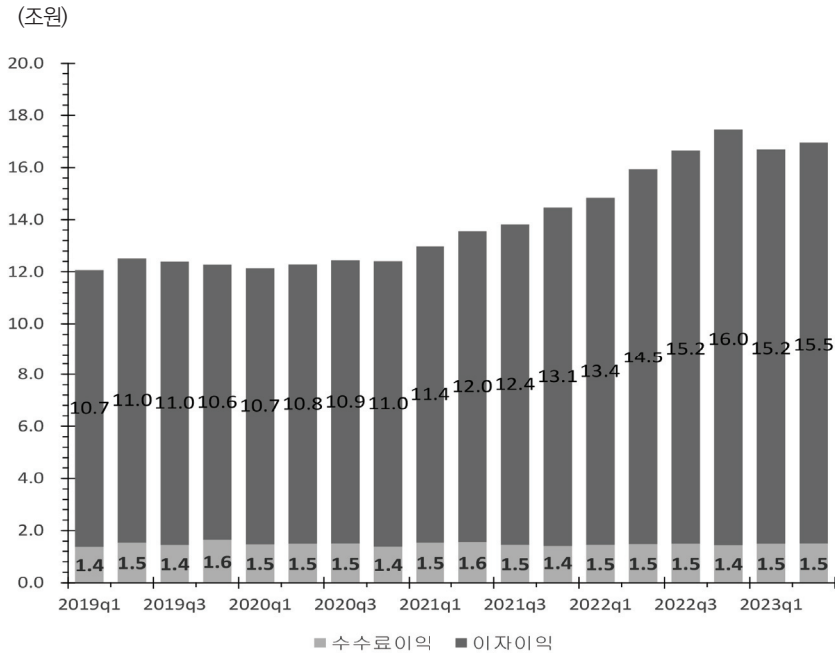


주: 은행별 평균값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 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에 의한 변동에 취약한 구조이며, 향후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음
 - 은행의 이자이익은 '22년 4분기 16조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년에는 15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수수료 이익의 경우는 1.5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업의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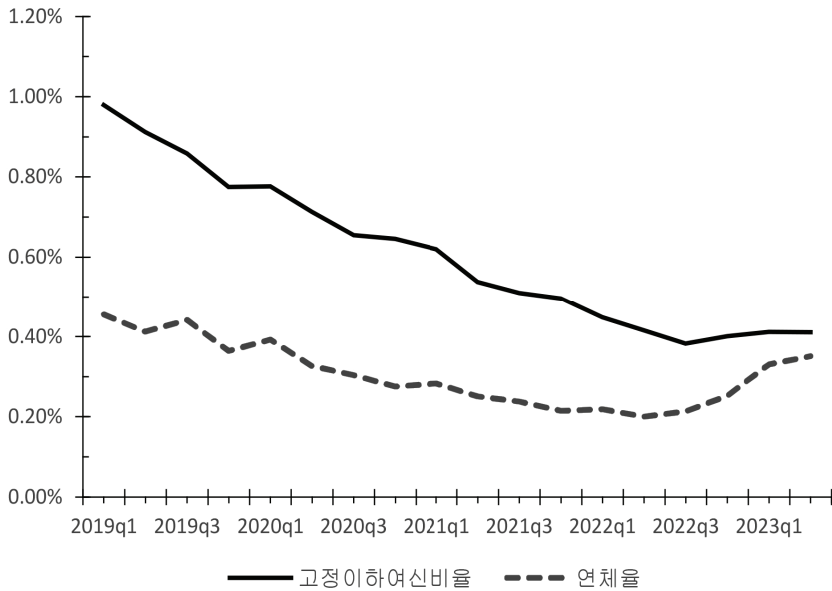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리스크 지표

☞ 은행업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년 3분기 이후로 상승전환 하였음
 - 특히 연체율의 경우는 '23년에 이르러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은행대출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증가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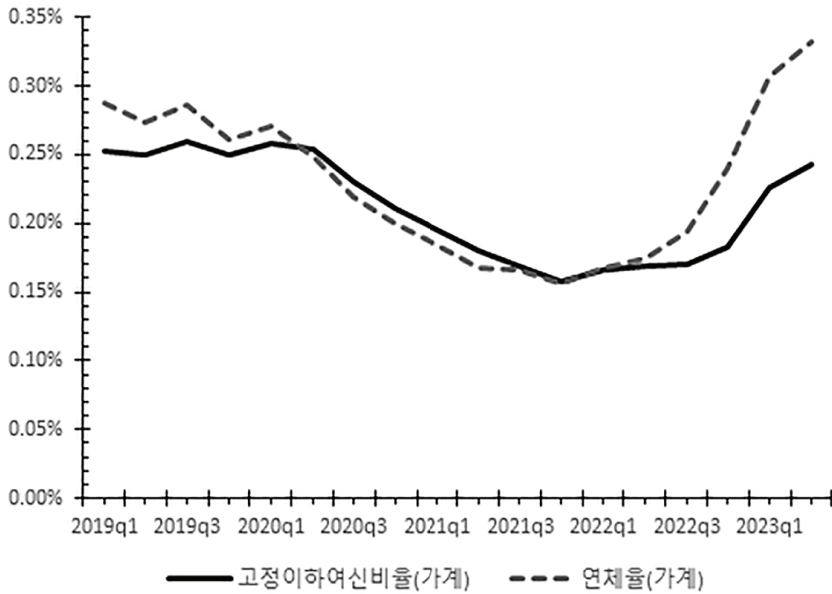


주: 각 은행의 건전성지표의 가중평균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가계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지표는 총여신, 기업여신과 달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모두 상승추세로 변화
 - 가계대출 연체율은 '21년 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하였는데, '23년 2분기 시중은행 가계연체율은 0.33%로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
 -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에 반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오른다는 것은 기존 차주들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부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주: 각 은행의 건전성지표의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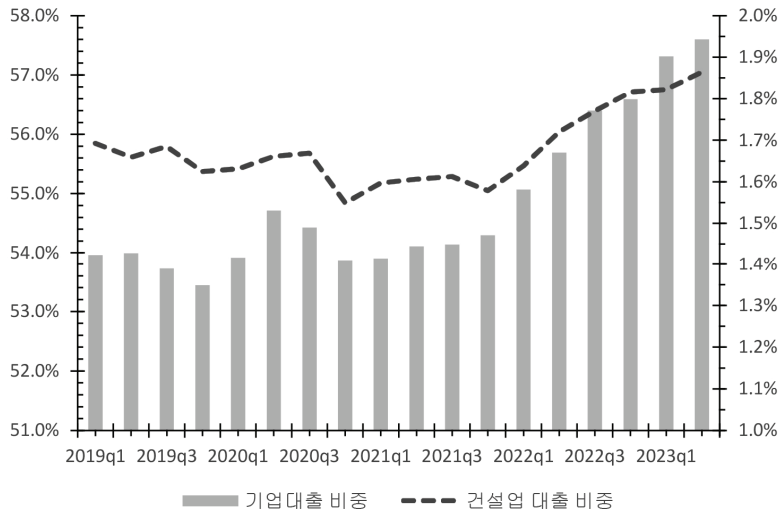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주요이슈¹³⁾

■ 건설업과 기업대출 리스크 증가

-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부동산경기의 악화와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22년 이후 국내은행의 총여신 대비 기업여신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년 4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건설업대출의 비중은 1.5%에서 1.9%로 증가
 - 전체 기업대출 대비 건설업 대출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13) 인터넷 및 전문가 의견 종합 결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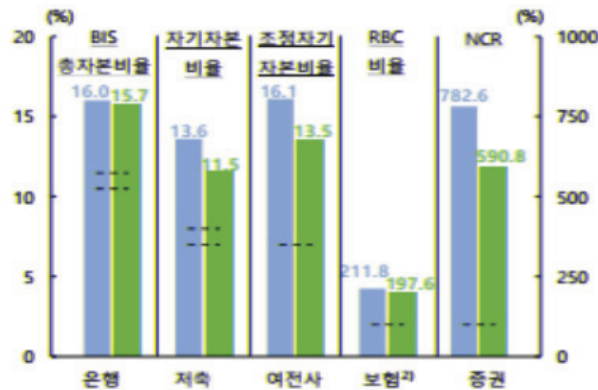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2금융권 부동산 PF 부실 우려

- 부동산경기의 악화는 부동산 PF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로 인한 금융시스템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한국은행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을 다소 하락시킬 수 있으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

【 부동산PF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주: 기준시점(좌), 주택가격 10% 하락 시(우)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 자금조달 리스크 우려

- 은행들의 금융채발행 확대에 인하여 시장금리 상승
 - 금융당국은 예금금리경쟁을 막기 위하여 금융채 발행한도를 해지하였음
 - 금융채발행 확대에 인한 금융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은 시장금리를 상승
- 여신전문회사의 자금조달여건 악화로 유동성 리스크 발생이 우려됨
 - 은행채의 발행확대는 채권시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에 대한 수요 축소
 - 자금조달에 있어 채권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회사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고객서비스 양극화 및 AI 기술 금융업 도입

- 금융권의 고액자산가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 가속화로 PB고객과 일반 고객과의 금융업 서비스 양극화 심화
 - 현재 은행업의 마케팅 전략은 일반고객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액자산가는 대면 서비스를 통해 수행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24년은 일반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은행/특수은행도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직원들도 텔러직군은 줄어들고 전문적 금융투자지식으로 무장한 PB직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생성형 AI 기술 도입에 따라 금융권의 상품정보를 빅테크 기업이 선점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Banking Agent'가 보편화될 수 있음
 - 생성형 AI 기술이 향후 보편화 되면서 전문적 서비스 업종인 법률, 의료 진단, 금융 등에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금융업의 경우 전체 금융업의 정보수집을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면서 기존의 '토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선 금융 AI 어드바이저 기술이 일반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전 금융권 금융상품의 장단점을 고려한 맞춤형된 상품을 추천하는 'Banking Agent'가 보편화 될 수 있음

【참고문헌】

문헌자료

국회예산처(2024.10),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10) 2024년 세계경제 전망
한국금융연구원(2023.11), 2024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2023.08), KDI 경제전망
한국은행(2023. 06),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2023.11), 경제전망보고서
한국은행(2023.0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IMF(2023.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23.0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World Bank Group(2023.06), Global Economic Prospects

인터넷사이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베스팅닷컴(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chinese-cpi-45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미연방준비위원회 홈페이지(www.federalreserve.gov)
IMF 홈페이지(www.imf.org)
스태티스τικά 홈페이지(Statitica.com)
Euromonitor International Macro Model(2023.5), (www.euromonitor.com)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fred.stlouisfed.org)

수산경제연구원 이슈포커스 2023-04호

발행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발행인	회장 노 동 진
편집인	수산경제연구원장 엄 기 두
수산경제연구원 연락처	전화 (02) 2240-0418 팩스 (02) 2240-0420 홈페이지 http://fei.suhyup.co.kr
인쇄처	피알앤북스 (02) 467-4545
발행일	2023.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